

60. 빈정거림 Sarcasm



어떤 사람들은 빈정대는 말이 귀엽고, 웃음을 유발하며, 해를 입히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선교사들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말 한 마디가 그룹 안에서 웃음을 유발한다고 생각한다.

- 너에겐 열등감 콤플렉스가 없어: 넌 실제로 열등하니까
- 네가 속상해 하는 것이 실제로 고통 받는 거야.
- 값싼 대화지만 괜찮아 너도 값이 싸니까.
- 지성의 결여를 무식으로 보완할 줄 아는군.

이런 말들로 사람을 웃게할 수는 있지만 피해 역시 예상해야 한다.

웹스터 영영사전을 보면 빈정거림(sarcasm)이란 ‘남을 조롱하고, 비웃고, 신랄하게 상처 주는 독설’이라고 나와있다. “헬라어 사르카자인(sarkazein)에서 나온 단어인 사르카스모스(sarkasmos)는 ‘개처럼 살점을 물어뜯다,’ ‘심하게 독설을 퍼붓다’라는 뜻이다.” 이러한 말들은 육체의 살을 찢기보다는 감정적인 ‘살점’을 찢는 것이다. 한번 상한 감정이 치유되려면 육체의 상처보다 더 오래 걸린다.

여기서 살점이라고 표현된 헬라어 ‘사룩스(sarx)’는 신약성경에 150 회 이상 나오는데, 대개 “육신(flesh)”, “육신의(fleshly)”라고 번역된다. 이 중 열 군데 정도에서는 다른 단어를 썼는데 킹 제임스 번역(흠정역)에서는 ‘육욕적인(carnal)’으로 번역되고 있다. 이 단어는 오늘날 거의 사용되지 않기에 어떤 번역본은 다른 표현들을 사용한다. 그 예로 NIV 는 다음과 같이 번역했다.

- 로마서 7 장 14 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sarx, unspiritual)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 로마서 8 장 7 절. “육신의(sarx, sinful)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 고린도전서 3 장 3 절. “너희는 아직도 육신(sarx, worldly)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worldly)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렇다고 해서 빈정대는 표현을 하는 사람들이 육신에 속한, 영적이지 않은, 죄악된 사람이라는 것은 아니다. 단지 이런 표현은 남에게 상처를 주기에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 상처를 주는 경우와 그를 방지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자.

“짖곳은/심술곳은” 선교사 “Mean” Missionaries

외국어로 된 유머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통역하다가 이런 농담이 나오면 “방금 농담하셨는데, 그냥 웃으시면 됩니다. 저도 무슨 뜻인지 몰라요”라고 한다. 빈정거리는 농담은 현지인들이 진담으로 받아들여 웃기지도 않고, 모욕감을 줄 수 있다.

영어를 조금 하는 현지인으로서 선교사들이 서로를 낮추며 저속하게 비하 발언하며 대하는 모습을 보면, 선교사란 모욕감을 주는 못되고 잔인한 존재로 서로 존중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것이다. 목소리 톤에 담긴 미묘한 차이를 분간할 수 없는 현지인은 크리스천끼리 서로를 부를 때 이름대신 비하적 호칭을 써도 되는구나 생각할 것이다. 동료 선교사를 부르는 모습을 보는 각도에 따라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가 있다.

- 존중하는 마음 없이 크리스천이 서로를 부르는 호칭—한 팀 안에 있는 멤버들이 항상 이런 호칭을 쓴다면.
- 존중하는 마음 없이 리더가 사람들을 대할 때 쓰는 호칭—리더가 이런 호칭을 쓴다면.
- 존중하는 마음 없이 부부가 서로를 부르는 호칭 – 남편과 아내가 이런 호칭을 쓴다면.
- 이런 빈정대는 표현을 들은 현지인들은 성경이 가르치는 사랑과 위로가 넘치는 언행에 일치하지 않는 크리스천의 모습을 보고 당황하고 혼란스러워 할 것이다.

“오해받는” 선교사 “Misunderstood” Missionaries

웃기려고 한 빈정거리는 표현이 동료 선교사에게 오해를 줄 수 있다. 다양한 문화권에서 온 사람들이 한 팀을 이루는 추세인 요즘 더욱 그러하다.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 모국어가 아닌 이상 오해의 소지는 항상 있다. 다문화 팀 안의 동료 선교사에게도 현지인과 마찬가지로 같은 배려를 해야 한다. 웃자고 한 이야기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 영어가 모국어인 동료 선교사라도 이러한 빈정대는 표현에 담긴 유머를 재미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실제로 어떤 팀에서 리더의 말이 농담인 줄 모르고, 무려 1년 동안이나 그 말을 마음속에 담아두고 혼자 고민한 사람이 있다. 그녀는 반복되는 리더의 유사한 언사를 참다못해 결국 폭발했고, 리더는 상당히 당혹스러워 했다.

선교사가 불안정한 상태일 때, 이러한 일은 충분히 생길 수 있다. 이를테면, 이러한 말들은 지적 자신감이 있는 사람에게는 해도 괜찮은 것이다.

- 원래 바보입니까, 아님 노력해서 이 정도입니까?
- 바보가 되는 비결이 뭔지 몰라도 효과는 있네요.
- 넌 지금보다 두 배 똑똑해져도 그냥 바보야.

지적 자신감이 없는 사람에게 이러한 말들은 치명적이다. 마지못해 웃긴 하지만 마음으로는 울고 있을 것이다. 아무도 자신이 상처받은 것을 눈치채지 못하게 말이다.

“변변치 못한” 선교사 “Milquetoast” Missionaries

빈정대는 유머가 불편하지만, 다양한 이유로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는 선교사들도 있다.

- 관계에 문제가 생겨 자칫 빈정대는 발언의 빈도가 늘어날까 두려워서.
- 삶과 일을 함께 해야 하는 공동체 안에서 불만을 이야기해 어색하고 불편해질 까봐.
- 말을 한다고 해서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으므로 고유의 기질로 받아들인다.
- 문제의 발언이 거슬리기는 하지만 심각한 문제는 아닌 것으로 치부한다.

이유를 불문하고, 방관하는 동료들 때문에 상황은 나아지지 않는다. 게다가 빈정거리는 발언을 하는 자가 다름아닌 리더이고, 안타깝게도 아무도 나서서 그에게 직접 말하지 않는다면, 상황은 그대로이고 조만간 상처받아 떠나는 선교사도 생길지 모른다.

“자비로운” 선교사 “Merciful” Missionaries

선하고, 사랑이 많으며, 이해심 넓고, 자비로운 사람이고 싶어서 아무 말없이 가만히 있는 선교사도 있을 수 있다. 사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냉소적인 선교사와 대면하는 것 자체가 사랑이 없어 보이고 심지어 비기독교적으로 느껴져서 주저한다. 부정적인 말이나 거절하는 듯한 말은 절대 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해서다. 인정해주는 긍정적인 말만 하고 싶어한다. 누구나 마음이 넓은 사람이고 싶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사랑과 공의가 균형을 이룬다.

“잘못 인도하는” 선교사 “Misleading” Missionaries

자기를 싫어할까 봐 빈정거리는 유머에 그냥 웃어주는 선교사도 있다. 이렇게 반응해주면 그 사람의 빈정대는 태도를 더 부추기게 된다. 비꼬는 발언을 한 사람은 자기를 인정해주는 줄 알고 용기를 얻게 된다. 빈정거린 사람은 자기가 내뱉은 말이 사람들에게 상처가 된다는 것을 암시하는 적절한 반응을 얻지 못한다. 침묵은 인정해주는 것이고, 웃어주는 것은 부추기는 것이다.

“고치는” 선교사 “Mending” Missionaries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빈정거리는 발언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선교사도 있다. 안타깝게도 동료 선교사와 대면하기 보다는 불편한 마음으로 지내는 경우가 더 흔하다. 데이빗 아우스버거(David Augsburger)는 *Caring Enough to Confront* 사랑한다면 부딪치리에서 사랑한다면 직접 대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에베소서 4-5 장은 대면하는 것에 대해 적고 있다.

- 에베소서 4 장 15-16 절에서 바울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안에서 모두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고 했다.
- 에베소서 4 장 29 절에서 바울은 건강하지 못한 언사에 대해 경고하며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라고 썼다.
-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더러운 것과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잔인한 농담에 대해 경고하며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썼다.

성경의 많은 구절들이 다른 사람을 격려할 것을 권면한다.

- 창세기 50 장 21 절에서 자신을 노예로 팔아 넘긴 형들과 대화하는 요셉은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
- 이사야 50 장 4 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해 주시기를’ 원했다.
- 바울은 골로새서 4 장 5 절에서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할 것을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 장 11 절에서는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부탁했다.

마지막으로, 빈정대는 사람이 해야 할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위한답시고 하는 말들이 현지인이나 동료를 실족하게 만드니 더 이상 그런 말들을 하지 말아야 한다. 고린도전서 10 장 22 절에서 바울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권면한다. 둘째, 자주 주위의 반응을 물어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자신이 남에게 어떻게 보여지는지 말해줄 소중한 사람들이 필요하다. 책임 있는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누구나 자신의 어떤 부분에 대해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물을 수 있다. 특히, 자신이 내뱉은 빈정대는 언사에 관해서는 더욱 그렇다.

빈정거리는 발언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더 악하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말을 한 당사자나 동료는 사역의 대상인 현지인이 유머 대신 모욕감을 느끼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또 비꼬는 농담을 동료가 사실로 오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이 브로셔는 저자 로날드 코테스키 박사의 원문(Ronald Koteskey: www.missionarycare.com)을 저자의 승인 하에 올네이션스선교센터(www.anmcusa.org)에서 번역한 것으로 한국어 판권은 올네이션스선교센터에 있습니다.